



5.31 지방선거

광주일보·KBC 주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 후진타오, 李白 시로 中·美관계 발전 의지 표명

김 “중견기업 육성” Vs “R&D특구 유치” 조

◇모두 발언

▲조영택=광주현실은 주민소득 쪼들, 재정자립도 쪼들다. 만년 소비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 필요한 시기에 유능한 사람이 행정을 책임 지지 못한 때문이다.

▲김재균=광주 사랑 한걸음 걸여왔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 부구를 이끌어왔다. 관료주의 타성에 젖은 고위공직자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공통질문

▲사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의 비전과 정책은.

▲조영택=기반 확립 위해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기간을 10년 앞당기겠다. 체계적으로 인재 양성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종합 학교 설립을 하겠다. 또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 전당을 설립하겠다.

▲김재균=이 사업은 20여년간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조 후보는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데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문화사업은 백년대계 사업이다. 예산도 계속 확충해야 한다. 계약적으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였다.

◇상호정책토론

▲김재균=광주는 실업률과 경제고용지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에서 살기 가장 힘든 곳이다. 기존 자동차·가전산업을 광산업·첨단산업·문화산업과 연관시켜 발전시키겠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 시민 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조영택=김 후보가 문화산업 기간 단축문제를 제기했다. 20년에 2조원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말한 것이다. 이 기간을 10개년 계획으로 압축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인재양성 등의 문화투자는 당연히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김재균=홍페이지에 보니 '1등 경제, 첨단 광주'라는 개념을 봤다. 그런데 박광대 시장도 '일등 광주'를 표방하고 있다. 이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100% 시민여론조사 방법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와 KBC는 20일 오후 한 시간동안 예비후

보를 상대로 토론회를 실시했다. 김재균 전 광주 북구청장과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의 열린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김재균 후보

“개혁적 시정운영 펼쳐 함께하는 광주 만들 터”

“지방·중앙 연결고리 광주경제 부흥 이바지”



조영택 후보

▲조영택=첨단 광주는 처음으로 주장했다. 광주는 제조업 분야에서 후발 주자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R&D 특구가 시급하다. 1등 경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상호자유토론

▲김재균 = 지난 1일 유권자운동본부에서 병역비리·뇌물수수 등에 대해 검증했다. 그 인터넷에 조영택

후보 이름을 치면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 해명해라.

▲조영택=제가 실무자 때 과거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동안 정부에서 3~4차 검증을 통해 이해가 됐던 사안이다. 과거 솔한 정부에서 검증을 해서 장관급까지 올랐다. 흠이 있다면 가능했겠다.

▲조영택=GRDP가 무엇이며 광

주는. ▲김재균=지역내생산업에 말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른다. 그러나 광주 경제 뿌리는 취약하다. 대기업 의존도도 심하다. 따라서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조영택=GRDP는 지역내 총생산의 의미한다. 인구가 나누면 1인당 소득액을 파악할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광주 1인당 GRDP는 1천백

77만원이었다.

▲김재균=조 후보는 사회봉사 측면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당락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살며 봉사활동 할 의지는 없는지.

▲조영택=30여년의 공직을 마무리 하고 고향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왔다. 시민들과 예만을 같이 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이다.

▲조영택=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 함께 출산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이 뭔가. 이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김재균=저출산 고령화로 진입, 이에 대비하는 것이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많은 통계자료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있어야 한다.

▲조영택=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를 말한다. 우리는 1.17명으로 심각하다.

▲김재균=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북구에서는 보건소에서 다산왕을 선출하기도 했다.

◇개별질문

▲사회자=곧 광주지하철 개통 2년이다. 운영적자와 2호선 건설에 대한 생각은.

▲조영택=운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 환승체계 강화, 운영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또 2호선 건설은 9천억원이나 소요된다. 다른 대중교통 육성도 생각해야 하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회자=나주혁신도시 건설과 미래 광산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김재균=전남도청 이전 이후 도심공동화 현상의 대안으로 제시된 한전을 시민과 상의없이 나누로 이전한 것은 잘못됐다. 권위주의적 독단적 결정이다. 제왕적 리더십에 기인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 위한 상생발전 위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했어야 한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높은 돛 바로 달고 창해를 건너리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부인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보잉항공사 공장 방문을 마친뒤비행기에 탑승하기전 환승객들에게 손을 흔들고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내 기차역인 시애틀에서 당(唐) 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의 시구와 미국의 사상가인 램프 월도 에머슨의 명언을 인용, 중미 관계 발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후 주석은 19일 낮(현지시간) 시애틀에서 열린 워싱턴주와 시애틀시의 상공기업계 및 우호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회에 참석, ‘호혜협력’을 심화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연설 서두에서, 후 주석은 “나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측과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깊게 해 중미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가 전면적으

로 앞을 향해 발전하는 것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이 이백의 시구를 인용한 것은 연설 말미. 그는 “1천200년전의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은 ‘장풍파랑 회유시, 직파운법제창해(長風破浪會有時, 直掛雲帆濟滄海)’라고 썼다”면서 이백의 ‘행로난(行路難)’ 3수 가운데 첫 수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인용했다.

중국에서 인용빈도가 높은 이 구절은 “모든 인생 도정의 심각한 장애를 부딪쳐 깨트리고, 자기의 원대한 이상과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결심과 신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부시-후진타오 첫 백악관 대좌

무역불균형·위안화 등 국가 이익 건 힘겨루기 예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마주앉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예포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환영행사에 참석한뒤 부시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1차 회담을, 각료회의실(캐비닛 룸)에서 확대회담을

가지며, 이어 오찬을 함께 한다. 두 정상은 이미 여러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백악관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간의 첫 백악관 대좌라는 형식면에서 뿐 아니라 회담 의제로 오를 산적한 현안들이 한결같이 까다롭고 중요한 난제들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54

브랜드의 가치

이제 브랜드가 가치를 지닌다. 브랜드는 기업의 생명이다. 브랜드는 기업의 경쟁력이다. 브랜드는 기업의 자산이다. 브랜드는 기업의 미래이다.

www.kwangju.co.kr